

전북교육청, “방학 중 생활방역 철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4일부터 여름 방학시작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간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7월 16일~23일 사이 종업식을 갖고 방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내에서는 14일 12개 학교, 15일 40개 학교를 시작으로 16일 가장 많은 192개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며, 다음 주 중 전북지역 전체 765개교 학교 대부분이 여름방학을 맞는다.

전주지역에서 가장 방학이 빠른 학

교는 14일 덕일중, 전주술빛중, 전일중, 전주성심여중, 전주제일고 등이며 15일에는 전주남중, 서전주중, 전주풍남중, 전주해성중, 전주세네고, 전주한일고가 16일에는 전주동중, 전중앙초, 전주여울초, 전주용소초, 전주팔복초, 전주동중, 전주서곡중, 신흥고, 성심여고 등이 종업식을 갖는다.

방학 시작이 가장 늦은 학교는 전주남초가 28일, 전주한들초가 31일 각각 방학에 들어간다.

방학을 앞두고 전북교육청은 2021학년도 여름방학 학교관리지도를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 모임 증가, 관광지 밀집도 확대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폭염과 물놀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적한 야외에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밀폐·밀집·밀집 시설 가지 않기를 안내했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학원 같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하기,

지주 손 씻기(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사람 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함께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외출하지 않기, 껌방, 노래방 같은 밀폐·밀집·밀집(3밀) 장소 방문하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도 제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직원들이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고2 학생 진로직업 체험의 날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4일 공무원을 꿈꾸는 전주지역 고2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오후 각 과별 진로직업 체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부서별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근무수칙과 직장 예절을 익힌 후 각 과별 현장 업무체험(1인 2과체험) 및 탐방 인터뷰, 진로 멘토링과 보고서 작성, 소감 발표 등을 통해 교육행정공무원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행정직기관의 다양한 실무를 체험했다.

세부적으로 학교교육과에서는 대입진학지도실 운영과 진로교육 필요성을, 교육혁신과에서는 혁신학교와 참학력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학교자치 및 환경·안전교육 필요성 등을 소개했다.

또 예산과에서는 교육청과 학교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등을 소개하고 행정과에서는 학생배치 계획 및 학급 편제 방법 등을 안내했다.

특히 진로멘토링 시간에는 장학사, 교육행정직, 부교육감과의 대화 등 영역별로 나누어 진로멘토링을 진행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 진로설계와 직업탐색 능력 및 자신감을 배양할 것”이라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직업 윤리와 진로탐색 능력을 키워 행복한 삶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4일 공무원을 꿈꾸는 전주지역 고2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 교원단체 연합 포럼 실시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 슬로건... 교육부·국가교육회의·5개 교원단체 공동 개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14일 협의회 회의실에서 ‘교육과정 성패, 지원체제에 달렸다’는 슬로건으로 제1회 교원단체 연합포럼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자치 30주년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청년, 교원, 지역공동체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토론회’ 중 교원 분야로서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5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9월중 2차 포럼을 진행한다.

이날 포럼에서 5개 교원단체는 교

육과정의 성패는 추상화된 미래 인재상 등이 아니라 지원체제의 내실화 여부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같이 하며, 교육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지원 대상 학생 확대, 학력의 부문까지 포괄하는 전문적이 고도 상시적 지원체제 구축, 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격차 예방을 위한 교육청 등의 적극적 역할과 교사 증원 등의 지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5명의 교사들이 발제를 했다. 좋은교사운동의 김영식 공동대표는 ‘소외없는 국가교육과정, 어떻게 바꿀까?’, 실천교육교사모임의 한희정 회장은 ‘실질적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체

제’,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채송화 고교학점제 대응팀장은 ‘고교학점제 지원체제, 무엇이 필요한가?’, 새로운 학교네트워크의 장소연 정책위원은 ‘학교교육과정(교육활동)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김형배 정책기획국장이 ‘고교학점제와 교육 불평등’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어 이윤경 회장(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최미숙 대표(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보배 이사(한국학생교육총연합회) 등이 같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은 최근 코로나 확산 속에서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유튜브(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최성규 학생, 우수발표학술상

학부생 신분 이례적 수상... 산화 아연 나노 구조 연구 발표

전북대학교 최성규 학생(유기소재섬유공학전공 4년·지도교수 김성륜)이 최근 대전에서 열린 2021년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도초우수발표학술상(포스터)’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연의 형상 구조를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합화 설계 및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다.

최성규 학생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연구를 접해보고 수상까지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김성륜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초우수발표학술상은 일반적인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수상하는데, 최성규 학생의 경우 이례적으로 학부생 신분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최성규 학생은 ‘열수 성장 공정 조건들에 따른 산화 아연 나노 구조’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최근 에너지 하베스팅, 센서 및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산화아

산화 아연 나노 구조를 나노 수준에서 제어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합화 설계 및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다.

최성규 학생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연구를 접해보고 수상까지 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적박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김성륜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북대 김성륜 연구팀은 다중 물질에 기초한 복합재료의 설계, 특성 및 응용 등 다양한 연구 주제를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비전대, 방학 중에도 취업 의지 ‘활활’

내달 23일까지 21개 학과 전체 교수들, 업체 방문 등 적극 행보

전주비전대학교 각 학과 지도 교수들의 출장이 줄을 잇고 있다.

하계방학 기간인 2021년 6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21개 학과 전체 교수들은 340여 개의 업체를 방문, 아직 취업기관을 정하지 못했거나 중도 퇴사한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주비전대학교는 재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위한 학생의 기초역량강화, 인적성 특강, 자격증 반 운영, 진로지도 멘토링 등 다양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모두는 진로심리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안내하고,

취업에 대한 의지와 꿈을 심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업지원처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졸업생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제공하고 있다.

박심훈 취업지원처장은 “취업을 1위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적성과 재능에 맞는 취업을 연계하는 취업의 질(quality) 제고에도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지역대학으로서 지역사회 인재 배출의 요람이자 극심한 취업난도 뚫을 수 있는 발판으로 명실상부한 취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